



hananimuibetop.org

부록 5c: 일상생활에 안식일 원칙 적용하기

이 페이지는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 시리즈의 일부입니다:

1. [부록 5a: 안식일과 교회에 가는 날 — 서로 다른 두 가지](#)
2. [부록 5b: 현대에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
3. [부록 5c: 일상생활에 안식일 원칙 적용하기](#) (현재 페이지).
4. [부록 5d: 안식일의 음식 — 실천적 지침](#)
5. [부록 5e: 안식일의 교통수단](#)
6. [부록 5f: 안식일의 기술과 오락](#)
7. [부록 5g: 안식일과 일 — 현실적인 어려움 극복하기](#)

원칙에서 실천으로

이전 글에서 우리는 안식일 준수의 기초—그 거룩함, 쉼, 그리고 시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원칙들을 실제 삶에 적용하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많은 신자들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안식일 계명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의 가정과 직장, 문화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 글은 안식일을 지키는 데 핵심이 되는 두 가지 습관, 즉 미리 준비하는 것과 행동하기 전에 멈추는 법을 배우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그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 두 습관이 성경적 원칙과 일상적 실천 사이의 다리를 놓아줍니다.

준비하는 날

안식일을 짐이 아니라 기쁨으로 경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섯째 날은 “준비하는 날”(누가복음 23:54)로 불리는데,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안식일을 위해 두 배로 거두어 모든 것이 준비되도록 지시받았기 때문입니다(출애굽기 16:22-23). 히브리어로 이 날은 **יֹמֵ הַחֲנֻכָּה** (yom ha'hachanah) — “준비의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적용됩니다. 미리 준비함으로써 안식일이 시작된 후에는 자신과 가정을 불필요한 일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준비 방법

이 준비는 단순하고 유연하게, 가정의 리듬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질 무렵 전에 집을 청소하거나 최소한 주요 방을 정돈해 두어 거룩한 시간 동안 집안일 압박을 느끼지 않도록 합니다. 빨래를 끝내고, 청구서를 지불하고, 심부름을 미리 처리해 둡니다. 식사를 계획해 두어 안식일에 급하게 요리하지 않도록 합니다. 더러운 그릇을 안식일 이후까지 보관할 용기를 따로 마련하거나, 식기세척기가 있다면 비워 두어 그릇은 널되 돌리지는 않도록 합니다. 일부 가정은 안식일에 일회용 그릇을 사용해 부엌의 어수선을 최소화하기도 합니다. 목표는 미처리된 일을 가능한 한 적게 남겨두어 모든 사람이 평화롭고 쉼이 있는 분위기 속에서 안식일 시간을 맞이하게 하는 것입니다.

필요성의 원칙

안식일 생활을 위한 두 번째 실천적 습관은 우리가 “필요성의 원칙”이라고 부를 만한 것입니다. 특히 평소 안식일 루틴 밖의 활동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을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일을 꼭 오늘 해야 하는가, 아니면 안식일이 끝난 뒤로 미룰 수 있는가?” 대부분의 경우 이 일은 미룰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한 가지 질문이 한 주의 속도를 늦추고, 해질 전 준비를 장려하며, 거룩한 시간을 쉼과 거룩함,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으로 보존하게 합니다. 동시에 자비의 행위나 긴급 상황, 가족의 급한 필요처럼 정말로 미룰 수 없는 일들도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원칙을 신중하게 사용함으로써 노동을 그치라는 계명을 지키되 안식일을 짐으로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요성의 원칙 적용하기

필요성의 원칙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거의 모든 상황에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편지나 소포를 받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거룩한 시간이 끝날 때까지 열지 않고 둘 수 있습니다. 가구 밑으로 물건이 굴러간 것을 보더라도 위험하지 않다면 미룰 수 있습니다. 바닥에 더러운 자국이 있더라도 청소는 대부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전화나 문자 메시지까지도 같은 질문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꼭 필요한가?” 긴급하지 않은 대화나 약속, 심부름은 다른 시간으로 미뤄서 평일의 근심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 접근이 진짜 필요를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건강, 안전, 가정의 안녕을 위협하는 것—예를 들어 위험한 유출물 청소, 아픈 아이 돌보기, 긴급 상황 대응 등—이라면 즉시 행동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잠시 멈추고 질문하도록 훈련함으로써 무엇이 진정으로 필수적인지, 무엇이 단순한 습관인지를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필요성의 원칙은 안식일을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의 목록이 아닌, 거룩함과 쉼의 분위기를 만드는 신중한 선택의 리듬으로 바뀌어 줍니다.

혼합된 가정에서 안식일 지키기

많은 신자들에게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안식일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가정에서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독자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배경에서 왔으며,

가정에서 안식일을 지키려 하는 유일한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배우자나 부모, 혹은 집안의 다른 성인들이 같은 확신을 공유하지 않을 때 긴장감, 죄책감, 좌절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강요하기보다 본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선물이자 표징이지 무기가 아닙니다. 억지로 배우자나 성인 자녀에게 안식일을 지키도록 강요하면 원망을 낳고 당신의 증언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그 기쁨과 평화를 본으로 보이십시오. 가족이 당신이 안식일 시간 동안 더 차분하고 행복하며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 그들은 당신의 실천을 더 존중하고 시간이 지나면 함께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배려입니다. 가능한 경우 준비를 조정하여 당신의 안식일 준수가 가정의 다른 사람들에게 추가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십시오. 예를 들어, 배우자나 가족이 식습관을 바꾸도록 압박하지 않도록 식사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활동을 자제하고 있는지 친절하면서도 분명히 설명하되, 동시에 그들의 필요를 일부 수용할 준비를 하십시오. 이런 가족 습관에 대한 배려는 안식일 준수 여정의 시작 단계에서 갈등을 피하는 데 특히 도움이 됩니다.

동시에 지나치게 유연하거나 관대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지나친 타협은 점차 올바른 안식일 준수에서 멀어지게 하고 나중에 바꾸기 어려운 가정 패턴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면서도 가족에게 인내를 보이는 균형을 추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당신은 가정의 다른 사람들의 소음, 활동, 일정은 통제할 수 없을지라도, 자신의 시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전화기를 끄고, 일을 내려놓고, 온유하고 인내하는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시간이 흐르면서 당신의 삶의 리듬이 어떤 논쟁보다 더 큰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안식일이 제한이 아니라 즐거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